

# 팀킴 '컬링 비리 호소' 사실로

문체부 감사 결과 "비리 심각, 선수인권 보장 찾을 것"  
과도한 폭언·보조금 횡령·컬링팀 사유화 등 확인돼

컬링 여자대표팀 '팀킴'의 호소가 사실로 판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벌인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여자컬링 국가대표 선수단(경상북도체육회 여자컬링팀)은 친밀한 결속력과 뛰어난 경기력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선수들은 2018년 11월 그동안 지도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경북, 대한체육회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 선수들이 호소한 내용과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사항들을 특정 감사했다. 11월19일부터 12월21일까지 5주에 걸쳐 문체부 2명, 경북 2명, 대한체육회 3명 등으로 이뤄진 합동 감사반 7명은 의성군청과 경상북도체육회(경상북도 경산)에서 실지감사를 했다. 외부 회계전문가 2명을 감사에 참여시켜 회계 분야도 검토했다. 합동 감사반은 경상북도체육회 선수와 지도

자 등 관계자 30여명을 면담했으며,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조사하고 검토했다. 이번 감사 결과 선수에 대한 과도한 폭언(욕설)과 사생활 통제 등의 인권 침해, 지도자들의 능력 부족 및 부실한 지도, 선수 상금 및 후임금 횡령, 보조금 집행과 정산 부적정, 전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의 친인척 채용 비리, 회장 일가의 컬링팀 사유화, 의성컬링센터 사유화 등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6건(중복 포함 수사의뢰 대상자 3명, 2개 기관) ▲징계요구 28건(중복 포함 징계대상자는 10명) ▲주의 1건 ▲환수 4건 ▲기관경고(주의) 4건 ▲개선 7건 ▲권고 11건 ▲통보 1건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법률에 따라 향후 1개월 간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최종적인 결과를 경북과 대한체육회, 대한컬링경기연맹, 경북체육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통보 내용에 따라 징계, 환수, 개선, 사법조치, 권고사항 이행 등 감사결과에

다른 처분을 조치하고, 이행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강정원 문체부 체육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감사를 통해 체육 현장에서의 선수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결과를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해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혁신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이후 위원회와 함께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감사 중 이적이 엇갈린 부분도 공개했다. "선수들의 호소문에 지적된 상황에 대해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선수들이 제출한 자료, 경북체육회, 대한컬링연맹 자료, 지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 판단했다. 예를 들어 선수들의 소포를 개봉한 것은 확인했지만, 편지를 개봉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폭언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다 밝힐 수 없다. 사진 찍어주니까 연예인인줄 아느냐, '서커스하러 왔느냐'란 발언과 외모비하 발언도 있었다"고 전했다. 부당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은 선수로, 한 사람은 트레이너로 돼 있다. 정식 지도자가 아닌 트레이너인데 정식 지도자로 활동했다. 주변 전문가들은 트레이너가 지도자 역할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했다"고 답했다. /뉴시스



'역주'

노선영이 21일 서울 노원구 태릉 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2일차 경기 여자일반부 1000m에 출전해 역주하고 있다.

## '프로당구시대' 개막... 출범 선포식

프로당구 시대가 열린다. 21일 신도림 씨네큐 영화관에서 프로당구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스포츠마케팅 회사인 브라보앤뉴가 주관한 프로당구 출범 선포식이 개최됐다. 세계 캐롬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은 당구대, 큐, 볼, 나사지(당구대 천) 등 용품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2만2000개 이상의 당구

장이 전국 골목 곳곳에 포진돼 있다. 세계에서 당구를 가장 사랑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프로추진위 위원인 스포츠코리아연구소 정희운 소장은 "국내 당구 인프라, 경기력, 시청률 지표 등을 종합해 볼 때 분명 당구의 프로화 성공 가능성은 아주 높다"면서 "결국 프로투어를 출범시켜 산업의 확대와 성장을 꾀할 적절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대한당구선수협회의 임정완 회장도 "그 동안

많은 선후배 당구인들이 프로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번엔 꼭 프로화가 성공하길 선수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바란다. 당구에 대한 높은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많은데 드디어 당구선수를 직업으로 삼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아 너무 기쁘고, 선수협의회를 대표해 프로당구의 성공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프로추진위는 3구선의 국내의 주요선수들이 참여하는 프로당구협회(PBA) 투어를 오는 6월 출범시키고 세계적인 프로투어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뉴시스

## 전국 마라토너 용담호에 총집결

내달 10일 용담호 마라톤대회



제4회 진안홍삼 용담호 마라톤대회가 봄날의 초입을 알리는 3월 10일 용담댐 광장에서 열린다. 진안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진안군육상연맹, 전국마라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30km, 하프, 10km, 5km 코스로 나눠 진행된다. 진안군 용담댐 광장에서 출발해 용담대학교, 모정교를 지나 정천 갈두교에서 되돌아 오는 코스다. 마라톤대회가 열리는 구간은 부분 교통통제가 있을 예정이며 통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군은 이 대회에 전국에서 2,000여 명의 마라토너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회 접수는 오는 26일까지이며 인터넷

(www.run1080.com)과 전화(전마협 061-375-1021, 진안군체육회 063-433-5010)접수가 가능하다. 진안군 육상연맹 강덕원 회장은 "깨끗한 진안고원의 자연환경과 호반이 갖춰진 최적의 마라톤 코스에서 전국 마라토너의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우즈베키스탄과 '태권도 협력' 강화

태권도진흥재단, 체육부 차관·NOC 위원장 등과 협력 논의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서의 태권도 활성화 및 세계화를 위한 공공의 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일 우즈베키스탄 체육부에서 열린 재단 이사장 이상욱과 우즈베키스탄 오이베크 카시모프 체육부 1차관(Oybek Kasimov)과의 면담에서 우즈베키스탄 내 태권도 발전방안과 2020년 도쿄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의 메달 획득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재단 이사장 이상욱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서의 태권도 발전과 불 조성을 위해 함께하자"며 "태권도원에서의 훈련과 수련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함께 하겠다"라고 했다. 카시모프 1차관은 "태권도원에서 열린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태권도원이 친숙하다"며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태권도 발전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국가올림픽위원회에서는 우미드 아크맛자노프(Umid Akhmatjanov) NOC 위원장과 라히모프 아흐맛존(Rakhimov

Akhmatjan) 태권도 협회장을 만나 태권도 위상 강화를 위한 양측 간 협력사항 등을 논의했다. 아크맛자노프 NOC 위원장은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태권도진흥재단과 협력해 태권도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상욱 이사장은 "세계 209개국에 함께하고 있는 태권도에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NOC 내에서도 태권도가 확고한 위치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체육부 1차관 및 NOC 위원장과의 협의를 가진 재단 이사장 이상욱은 "우즈베키스탄은 태권도에 있어 중앙아시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이다"라며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을 통해 중앙아시아에서의 태권도 발전과 입지 강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재단은 우즈베키스탄 국립대학교 및 국립체육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비롯해 고려인 태권도 코치·심판 간담회, 타슈켄트 세종화당 방문을 통해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등 태권도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서의 태권도 활성화 및 세계화를 위한 공공의 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창군 GOCHANG COUNTY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